

과도한 보온은 환기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취재/이인수 기자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겨울철 육계사육에 있어서 월동전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하여 병아리를 입주시켜 사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닭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낮은 환경온도에서는 체온유지를 위해 많은 에너지 낭비를 가져오게 됨으로 철저한 월동준비가 최대관건이다.

겨울철 육계 사양관리에 있어 계사내 낮은 온도로 사료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계절이다.

육계업은 단시간에 성장속도가 빠르고 사료효율이 높도록 개량되면서 환경조

건에 예민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닐하우스식 간이계사(가설건축물)나 개방육계사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겨울철 계사내 온도유지, 환기문제, 습도, 기타 등에 의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겨울철 육계를 사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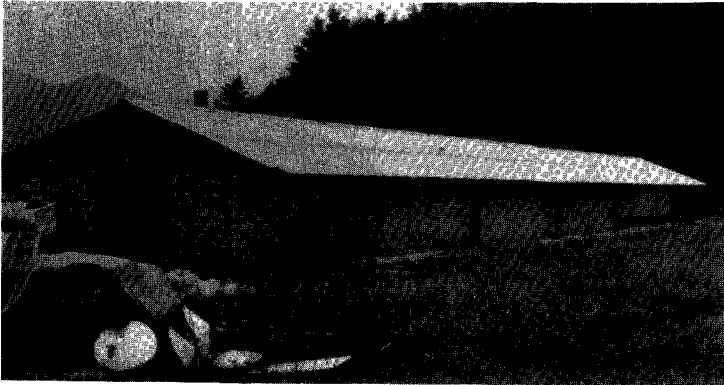
먼저 계사라 함은 외부환경으로 부터 닭을 보호하며 알맞은 온도유지, 환기문제, 습도를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하여 주는 시설이라 하겠다.

육계업은 육류수요의 급증에 대처하여 짧은 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자금회전율이 빠른 장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려는 양축농가들의 관심대상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아울러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여 사육규모를 대형화, 전문화 보다는 자가노동력을 이용하여 적절한 규모로 사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매년 다가오는 겨울철 이기는 하지만 월동준비는 항상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동준비와 점검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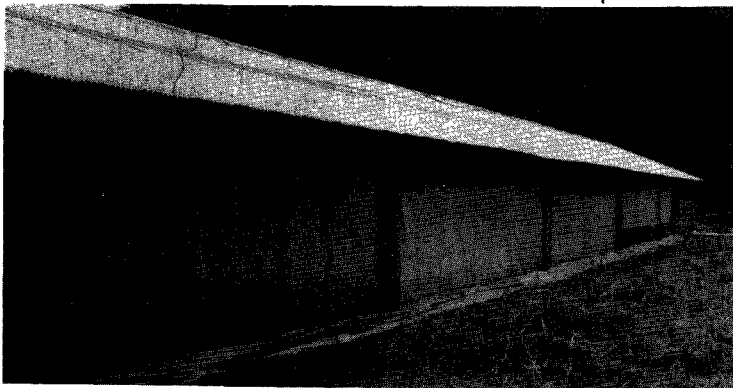


〈사진1〉

온도유지를 위한 보온단열 문제, 환기문제, 급이·급수 문제, 주위환경을 위한 정리정돈 등 구분하면 되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단열 문제와 환기문제가 겨울철 육계사육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예로 월동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계사주위의 깨끗한 정리정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사주위 정리정돈 미흡이 우선 단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깨끗한 정리정



〈사진2〉

돈만이 모든사업 시작의 첫 걸음인 셈이다. 계사내 보온유지를 위해 벽이나 천정으로 소모되는 열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열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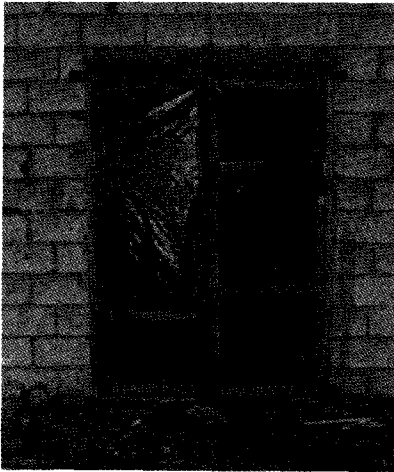
단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온도유지를 위해 단열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벽면 단열 미흡으로 인해 계사내 온도를 감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간이계사에서 월동준비 상황을 보면 우선 계사벽면에 비닐을 쳐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비닐은 계사벽면에 두겹으로 쳐주고, 비닐과 비닐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는 것이 한층더 온도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비닐설치시 두겹을 겹쳐 설치할 경우와 일정한 공간을 두어 설치할 경우 온도차는 상당히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외부에 온도덮개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한층더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출입문 월동준비 상황은



〈사진3〉



〈사진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자재 사용은 비닐, 비닐마대 순으로 처리하였으며,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줄의 나무 막대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놓아 쥐, 기타 동물 침입방지는 물론 보온에 최대한 신경을 가졌다. 그러나 지붕 처리에 있어서 보온유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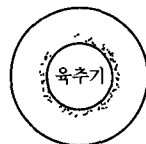
왜냐하면 지붕 보온처리를 보면 스텐트를 씌운 이외에 월동준비를 위한 다른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월동준비를 한후 입추시켜 육계를 사육하게 되는데 대개 계사내 닭의 사육분포도에 따라 월동준비 상황을 쉽게 점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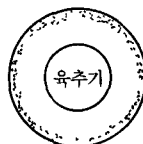
겨울철 닭의 사육분포도는 일반적으로 〈그림1〉과 같이 4종류(너무 추울때, 너무 더울때, 적당할때, 셋바람이 있을때)로 구분할 수 있다.

계사내 닭 분포도에 따라 온도유지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닭들이 계사내 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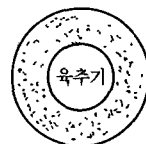
그외 계사내 너무 추울때는 온도유지를 위한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너무 더울



〈너무 추울때〉



〈너무 더울때〉



〈적당할때〉



〈셋바람이 있을때〉

〈그림1〉 계사내 닭 분포도와 온도와의 관계

때는 환기에 신경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계사내 찬바람이 들어올때는 월동준비 미흡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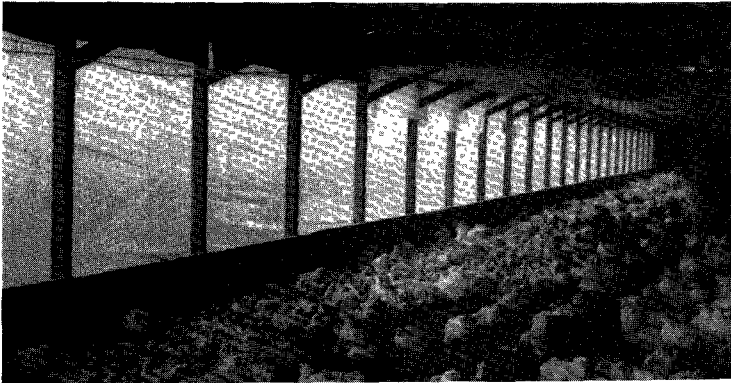
겨울철에는 가능한 찬바람과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육계사육시 주령별 권장 온도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3~4일 온도관리는 32~35℃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표1. 주령별 권장온도

주령	1	2	3	4	5주이후
온도(℃)	32.2	29.4	26.7	23.9	21.1

특히 병아리 입추 1~2일 전부터 계사내에 급온을 하여 줌으로써 환경적응력이 부족한 병아리가 입추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병아리를 입추하기 직전부터의 급온은 계사바닥이나 벽면, 기타 등의 냉기로 인해 찬공기가 스며들어



〈사진4〉

와 계사내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게 됨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겨울철 육계사육시 중요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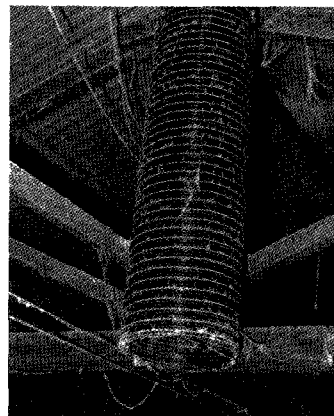
계사내 온도유지는 온도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일동준비와 아울러 온도·환기를 통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사진5〉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붕의 건축자재 사용은 일반적으로 스텔트, 유리솜, 비닐마대 순으로 계사신축시 단열도를 고려하여 신축하는 편인데 이 농장의 경우 지붕은 스텔트 이외에 아무런 단열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겨울철 계사내 온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환기장치는 굵은 파이프를 이용하여 계사높이의 1/3정도로 내려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 육계사육에 있어 환기는 온도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기장치는 닭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며, 계사내에 발생하는 각종 먼지, 냄새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닭은 체중당 산소 소비량과 가스발생은 다른 가축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환기장치



〈사진5〉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하다.

환기불량에서 오는 피해는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저하, 기타 각종질병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을 제공하여 주는 계기가 된다. 특히 유탐해가스로 인한 닭의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 피해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 환기소홀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보다 안정된 산업으로 육성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계열화 체계를 이루고, 또한 사육자는 무리한 입추계획보다는 년 4회전 정도로 자가노동력을 이용하여 적절한 사육규모를 입추시켜 사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더 나아가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자, 계열주체가 상호협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육계인들의 생존의 길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양계**